

哲學者 友松 先生 素描

李 明 賢

“나의 자화상은 그 출발점에서 큰 착오를 일으켰다. 처음부터 학자가 되겠다는 목표의 설정도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그럭저럭 대학교수의 직을 얻게 되었고, 또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정년을 맞은 꼴이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세운 삶의 설계와 그 설계의 현실적인 성취를 견주어 봄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한 존 롤즈의 의견에 비추어보면, 분명히 한폭의 실패작이다.”¹⁾ 이것은 友松 金泰吉교수가 최근 어떤 월간지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정년을 맞이하여 쓴 글의 한대목이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가 자기의 삶을 하나의 실패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왕좌왕하다가」 된 대학교수와 「그럭저럭」 세월이 밀려가 버린후 찾아온 정년의 감회를 그는 실패작으로 묘사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은 멋있는 실패작인지도 모른다. 같은 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의 고백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에 학원 사태라는 만성적인 풍파만 없었더라면, 나는 철학교수라는 직업에 거의 완전한 만족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가 한 인간의 삶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게되는 것은 우왕좌왕하는 오솔길속의 그의 모습과 마주쳤을 때이다. 그러기에 나는 友松 先生이 걸어온 오솔길속의 몇가지 이야기를 적어 보려고 한다.

기미년 3.1 운동이 벌어지지만 않았더라면, 友松 先生은 아마 지금 나이보다 일년 더 일찌기 태어나셨을지도 모른다. 그의 부친 金聲應(1886-1950)先生은 한일합방후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시다가 육고를 치루게 되었는데, 그의 10년의 刑期가 1919년 4월에 끝나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3.1 운동이 터지자 그의 부친은 옥중에서 만세를 불렸다. 이 만세사건으로 형기가 연장되어 그의 부친은 1920년 초에야 옥중에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해 11월 15일에 충북 中原郡 巴沼라는 두메산골에서 友松 先生은 사남매중 막내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의 부친은 해방후 수립된 이승만정부로부터 도지사의 취임을 권유받기도 하였으나 사양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불행하게도 1950년 육이오 전쟁중 납북되어 悲運의 최후를 맞이하셨다. 友松 先生께서 소학교에 입학을 한 것은 열살

1) “대학아 잘 있거라” 김태길, 「샘이 깊은물」 1986년 정월호, p.46.

이나 되었을 때였다. 그가 그렇게 성숙한(?) 소년이 되어서야 학교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10킬로나 떨어진 소학교의 위치때문이었다. 시골길 10킬로의 거리는 열살도 못 된 어린애가 혼자 걸어다니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 부모님은 그를 열살이 될 때까지 집에 불들어 놓았던 것이다.

국민학교라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열살짜리 友松先生은 앞으로 닥아올 큰 인생행로를 놓고 자기의 기개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시골길을 가르지른 개천위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내가 만일 이 다리를 눈감고 건너가면, 내 인생은 성공할 것이요, 다리밑으로 떨어지면 내 인생은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나서 열살난 소년은 인생을 걸고 “눈감고 다리건너기”의 모험을 감행하였다. 밟을 헛짚어 다리밑으로 떨어졌다. 지나던 동네 아이들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다행히 구제되었다.

역시 일학년 때 일이다. 음악시간이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였다. 우리의 어린 友松先生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귀동냥으로 배운 어른들의 출타령을 한곡 뽑아댄 것이다. 출집노래 부르는 소학교 일학년생의 모습은 상상만해도 우습기 짜이 없다. 선생님의 엄한 꾸중과 함께 출타령 연주는 중단되고 말았다.

友松先生이 파소라는 두예산골에 살게된 것은 그의 부친이 문자 그대로 처자를 둘봄이 없이 조국의 광복운동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비교적 부유했던 外家에서 마련해준 농토에서 그의 모친께서 농사를 짓어 살림을 꾸려나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소학교를 마친 후, 友松先生은 外祖父의 경제적 도움으로 清州公立第一中學校(지금의 청주고등학교의 전신)을 마친후, 낭시 일본 통치하에서 당대의 수재들의 집합소와 같은 京都의 第三高等學校文科에 진학했다.

友松先生 자신까지도 “샌님”이라고 자신을 묘사하는 友松先生은 적어도 젊었을 시절은 결코 단순한 샌님이 아니었다. 오늘의 대학 1~2학년에 해당하는 당시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스톰”이라는 놀이가 유행했는데, 그것은 우왁스럽고 거칠은 일종의 패싸움 놀이 비슷한 것이었다. 그 놀이의 “리더”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뱃장과 거센 사나이가 되곤 했는데, 友松先生은 “스톰리더”로서 활약이 대단하였다. 그것도 그럴것이 그는 100미터를 12초에 달리는 끔이 기민한 청년이었을 뿐 아니라, 응원단장까지 하던 활달한 청년이었다. 이것은 오늘의 「샌님」 友松先生의 모습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의 삶의 뒷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앞에서도 조금 말했듯이, 그의 부친은 본래 名門士族 출신이었으나, 독립운동에만 전념했던 탓으로 돈을 벌어 처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남편과 아버지”는 못되었다. 그래서 友松先生의 어린시절은 외가의 재정적 도움에 의존한 가난한 삶이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부자학생이 되었다. 그가 三高에 다니고 있었을 무렵인 1941년경, 그의 부친은 금광에 손을 대었는데, 마침 “노다지”가 터서 나와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의 부친은 갑자기 번 거액의 돈을 삼등분하여 그의 형님과 友松先生에게 한 몫씩 나누어 주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여 대략 5억원가량이 友松先生의 몫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그이후 그의 학창생활은 자못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부친에게서 돈을 나누어 받은지 일년도 채 안되어 자기 몫의 돈 일부를 부친께 되돌려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일년이 지나자 부친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부친은 그 소득세를 낼 돈이 없었다. 삼분의 일을 나누어 가지셨던 부친몫의 돈은 독립운동을 같이하던 어려운 친구들에게 나누어 준 까닭에, 남아있는 돈이라고는 몇푼 안되어 부친으로서는 세금을 도저히 납부할 수 없었다. 부자가 망해도 삼년 먹을 것은 남아있다는 말이 있듯이, 友松先生은 아버님께 드리고 남은 돈으로 해방이 된후 혜화동에 한옥 한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한옥은 그가 30 대 말 미국 유학 중에 사기꾼의 농간에 의해 빼앗기고 말았다.

三高를 졸업한후, 일본의 패망이 머지않아 도래하리라고 예견되던 때였던 1943년 10월에 友松先生은 당시의 동경제국대학 법문학부 정치과에 입학했다. 그가 정치과에 지망한 것은 해방을 눈앞에 보며 새로 탄생할 독립국가의 형성에 이바지하겠다는 「스톰왕초」다운 발상에서였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2년이 지나 해방이되어 조국에 돌아와서 세상돌아가는 모양을 보고나서는, 그것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임을 곧 깨닫고 방향전환을 하게되었다. 한창 혼란스럽던 해방 직후의 아주라장같은 정치판에서의 온갖 사술의 짓거리를 보고, 그는 자기의 정치에의 꿈이 한갓된 이상주의적 청년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리고나서 그가 꿈꾸었던 인생사업은 청년운동이었다.

友松先生이 「점잖은 대학교수」가 되시기 얼마전 우리의 흥미를 끄는 「두가지 사업」을 그가 벌였던 것이다. 그 하나는 1944년 2월경 동경제국대학 법문학부에 다니고 있었던 때에 일어난 일이며, 다른 하나는 해방 직후 그가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1944년에 그가 벌였던 사업은 「점심 싸들고 수행된 求女行脚」이다. 1944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동경으로부터 한국에 돌아온 友松先生은 영등포에 거주하시던 형님댁에 머물고 있었다. 이 때 그는 당시의 기준으로 결혼할 나이가 되고도 넘은지라, 결혼할 배우자를 당시의 일반풍습대로 “媒婆”라는 요즈음의 “마담뚜”의 신세를 지지 않고 직접 자신이 나서서 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방법은 선정된 주요대상지역의 길거리를 지키고 서서 지나는 젊은 여인들을 자세히 관찰하다가, 「눈에 드는 美女」가 나타나면 迷行하여 그 집을 확인해 두었다가, 나중에 탐방하여 협상을 벌리는 것이었다.

무려 일주일간에 걸쳐 매일 “변도”를 싸들고 求女行脚을 벌렸다. 그 구여행 각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한가지를 소개하면 이렇다. 효자동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다니다 눈에 드는 美女가 지나가길래 뒤를 쫓아가 그 집을 확인해 두었다. 그 다음 날 그 집을 찾아갔다. 점잖게 방문하여 집근전을 쳐기위해서였다. “여봐라, 시청에서 호구 조사 나왔는데, 주인계시나고 여쭈어라” 이렇게 소리를 내지르자 대문이 열리니 집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식구 모두 나와서 일렬로 서보십시오” 웬 일인가. 모두 나와 썼는데 거기에 어제 보아두었던 그 美女가 없지 아니한가. 의출중이었던 것이다. 결국 성과

없는 호구조사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友松先生은 이런 求女行脚사업을 벌인 후로부터 일년 뒤인 해방되던 해 1월 1일에 결혼식을 올렸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밝혀두어야 할 것은, 그 때 결혼의 배우자이시며, 현재의 사모님이신 李鍾順女史는 그 사업의 성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가 1월 1일을 택하여 결혼식을 올린 것은 美女에 대한 성급함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군국주의의 행패인 「정신대」에의 징발을 사전에 예방코자 했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생 시절에 友松先生이 벌였던 사업은 서울역에서 벌리는 「운수사업」이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기름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혼한 때도 아니었지만, 그런 기름자동차나 속불로 가는 목탄차를 동원한 운수사업을 벌릴 만큼 자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그가 사용한 운송기구는 지게와 리어였다. 서울역에서 왕십리까지 짐을 나르기도 하였으며, 뚝섬에서 배추를 실어 나르기도 하였다. 그 사업은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다. 그 땅면의 "기상업자"들이 자기들의 관할구역을 내세워 육박지르는 바람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友松先生이 해방을 맞은 것은 그가 동경대학 졸업 일년을 남겨 둔 때였다. 그러나 그는 일본이 패망하기 전 동경대학을 떠나 고향에 돌아와 區長노릇을 했다. 그것은 그가 징용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관직」이었다. 그리고 그는 일본군대에 學兵으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단식을 하기도 하였다. 그가 벌린 단식은 물론 단식투쟁은 아니었다. 단식투쟁으로 학병에 안풀려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었다. 단식을 함으로써 신체검사에 합격될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한 신체를 만들었던 것이다.

고향에서 해방을 맞은 友松先生은 고향에 있는 忠州公立女子高等學校에서 영어, 국어, 체육과목들을 강사로 잠시 가르쳤다. 해방 이듬해 1월 그는 아직 서울대학교로 개칭되기 이전 京城大學 철학과에 편입학하여 윤리학을 공부하였다. 그가 동경대학 법문학부에서 정치학과 법학을 공부하다가, 윤리학으로 지적관심을 전환하게 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의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청년운동과 같은 교화적인 실천적 작업에 그가 관심을 돌렸기 때문이다. 윤리학의 연구는 청년운동과 같은 교화적 실천운동에 그 어떤 이론적 무장을 제공하리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청년운동에의 꿈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가 그런 청년운동에 몸을 담지 못하게 된 태는 그 당시의 사회적 어려움도 무관하지 않겠지만, 그의 "좋은 학벌"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채 얻기도 전에 그가 이미 다녔던 三高와 동경대학라는 좋은 학벌 때문에, 대학에서의 가르치는 자리가 쉽사리 제공되었다. 서울여자의 과대학(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의 윤리학·논리학·철학개론을 가르치는 자리가 바로 그 첫 경험이었다. 1949년에는 「니체의 윤리사상」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얻은 후, 이화여자대학교 전임강사로 취임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의 일년동안의 교편생활이 지난 후, 누구에 못치 않은 특유한 쓰라린

경험을 그에게 안겨준 육이오가 터졌다. 그가 육이오 때 겪은 그 비범한 경험은 하나의 책으로 그 자신에 의해서 어느때엔가 쓰여질 것이다. 육이오가 끝난 1954년, 수도여자의 과대학으로 개칭한 옛날의 서울여자의 과대학으로 그가 돌아왔다. 이 무렵에 차주환, 장기근 두 교수와 함께 수필동우회를 만들어 수필을 쓰기 시작하면서 「서리맞은 화단」을 지상에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그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30여년 동안의 수필 가로서의 그의 삶의 단초를 이루었다. 1956년 友松先生은 서울대학교 교양학부 待遇助教授겸 政治大學(현 건국대학교)의 부교수로 전직하고, 民衆書館에서 「倫理學 概論」을 첫 출판했다. 그 이듬해인 1957년에 미국 정부초청으로 미국에 일시 연구차 갔다가, Johns Hopkins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학생으로 등록하여 2년반만에 Ph.D학위를 얻어 1960년 4월에 귀국하였다. 이듬해 연세대학교 철학과 부교수로 자리를 옮겼다가, 1962년 8월 서울대학교 철학과 부교수로 부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24여년동안 봉직하였다.

지금까지 發刊된 友松先生의 著述은 著書 12권, 譯書 3권, 수필집 12권, 論文 34篇에 이른다. 내용의 질은 제쳐놓고서라도 이런 분량의 원고지를 매꾼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몇줄의 글이라도 써본 사람이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결코 그저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그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똑똑히 읽을 수 있다. “학문의 길로 가는 출발점이 늦었다는 것을 의식한 나는, 미국 유학을 하러 떠나던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히 부지런을 멈었다. 언제나 능률적인 작업을 한 것은 아니며, 잘못된 계획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거의 매일같이 꾸준히 꿈지려고 했다……… 샌님의 길을 택함으로써 잃은 것도 많았다. 각종 회합에도 되도록 빠지고 다방이나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노닥거리는 시간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애쓴 나의 생활태도가 친구들이나 친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을 턱이 없으며, 그리하여 내 생각에도 정말 멋대가리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런 사실을 모두 잘 알면서도 나는 샌님의 길을 내 의지로 선택해왔다.”²⁾ 그 모두가 의지로 선택한 “멋대가리 없는” “샌님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온 외길에서 거둔 열매임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닫는다.

그러나 그는 그가 겸손하게 표현하듯 그리 「멋대가리가 없는 삶」을 산 분은 아니다. 1955년, 그가 서흔 다섯살 때에 시작한 테니스를 그는 요즈음도, 그가 표현대로, “미친 놈처럼 좋아한다.” 무려 31년이나 계속되어온 스포츠이다. 그리고 그의 才談과 德談은 이미 장안에 알만한 사람에게는 그 실력이 대단하다는 것이 소문나 있다. 그리고 장안에서 소문난 主體辭와 祝辭를 하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友松先生은, 자신이 샌님이 되려는 일관된 노력의 탓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결코 혼자만의 세계를 즐기는 「고독한 城主」만은 아니다.

2) “대학아 잘 있거라” 김태길, 「샘이 깊은물」 1986년 정월호, pp.46-47.

1964년에 創立된 哲學研究會의 初代會長으로서 이 땅에서의 哲學의 共同研究의 활성화를 위해서 짊은 時節부터 헌신해 왔으며, 1975년에는 한국철학회의 회장으로 피선되어, 회칙의 개정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학회활동의 활성화에 큰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철학사」 편찬사업을 한국철학사업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7년에는 이 땅의 수필가들의 전체 모임인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초대회장으로 수필가들의 상호 친교와 수필문학의 진흥에 힘을 썼다. 그리고 작년에는 島山思想研究會의 초대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때 한국정신문화원 設立推進本部 연구위원장으로서 창립 당시 그 기구를 순수한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발시키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그 명칭도 한국학연구원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그것도 그의 뜻과 같이 되지 않았다. 창설과 함께 연구 부원장의 자리에서 약 일년 머물다가 스스로 퇴진하고 말았다.

그의 학문적 노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경주되어왔다. 벌써 그의 學士論文인 「道徳判斷의 基準」(1947)에서 이미 그 짹을 볼 수 있듯이, 윤리학의 학문으로서의 성립 가능성에 관한 메타윤리학의 문제가 友松先生의 學門研究의 한 방향이다. 그의 미국에서의 博士學位論文인 「Naturalism and Emotivism; Some Aspects of Moral Judgment」(1960)는 그가 지닌 그러한 메타윤리적 관심의 체계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후 그가 세상에 내놓은 「윤리학」(1964)은 메타윤리학적인 시각에서 쓰여진 한국에서의 최초의 윤리학의 저술이다. 그가 발표한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이러한 메타윤리적인 문제들을 취급하고 있다.

友松先生의 철학연구의 둘째 방향은 바람직한 사회의 기본적 틀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겨냥하고 있다. 그것을 사회윤리 내지 사회철학적 문제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존 듀이의 사회철학」(1967)을 필두로 해서 나타난 「새로운 가치관의 지향」(1969), 「철학 그리고 현실」(1978) 등 여러 저서들과 논문들에서 그는 전환의 역사속에 선 한국사회가 추구하며 채택해야 할 올바른 사회적 구조가 어떤 것인가를 탐색하고 있다.

友松先生의 연구의 셋째 방향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서양의 현대의 가치관의 조화내지 융화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전통과 현대의 와중에서 숨쉬고 있는 짊은 대학생의 가치관의 현장조사도 하며, 우리의 일상적 삶의 구체적 모습의 묘사들인 한국문학의 현장속에 반영된 가치의식을 점검한다. 「한국 대 학생의 가치관」(1967)과 「현대소설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1985),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1982)와 같은 저술들은 그러한 탐구의 열매들이다.

이러한 철학자로서의 友松先生의 무게 못지 않은 수필가로서의 友松先生의 무게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발견한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 내놓은 수필집이 12권이라는 분량의 무게라기보다는 그의 문장의 무게와 그 문장속에 배여있는 사상의 무게이다. 그가 한국수필문학에 기여한 것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장편수필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수필문학의 가능성을 개척해 놓았다는 점이다. 「흐르지 않는 세월」(1974)이

바로 그것이다. 어떤 평자는 友松 先生의 수필을 “문학과 철학의 융화”라고 표현했다.

교수로서의 友松 先生의 모습에 관해 지금 40 대 초반에 접어든 어떤 철학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철학과 다닐 때 그 선생님만큼 분명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철학강의를 하시던 선생님이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지금 그분의 전공과는 거리가 먼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그분을 속마음으로 은사로 모시게 되는 까닭은 바로 명석한 강의 때문인 것 같다.”

사람으로서의 友松 先生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거리감” 같은 것을 느끼는지도 모른다. 필자도 20여년이상 선생님을 모시며 지내왔으나, 솔직히 말해서, 그 어떤 거리감같은 것이 전혀 없지 않다. 이것은 술과 담배가 배제된, 어찌면 수도사를 방불케 하는 그의 삶의 분위기에 연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友松 先生은 결코 無情한 분은 아니다. 깊이 침전되었다가 그치지 않고 흘러 나오는 용달샘처럼, 잔잔한 가운데 은근하고 한결같은 성품을 지닌신 분이 友松 先生이시다. 友松 先生과 素心蘭사이에 그 어떤 친화성을 느끼는 것은 필자만이 아니다. 꽃꽂한 선비, 그것은 우리가 인간 友松 先生에게서 무엇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느끼는 모습인지도 모른다.